

지역 소식통

고창군, 경관농업특구
계획변경 보고회 열려

청보리와 유채꽃 등 매년 봄
탄성을 자아내는 고창군 경관
농업이 특구연장으로 또 한번
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.
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
'고창 경관농업특구 계획변경
용역 중간보고회'가 군청 2층상
황실에서 열렸다.
보고회에서 경관농업특구 연
장을 위한 특화사업에 대해 의
견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
검했다.
고창군에선 2005년부터 경관
농업특구를 지정해 학원농장
주변 25만평의 청보리밭과 인
근 50여만평의 경작지에서 친
환경농업이 이뤄지고 있다.
특구를 통해 경관농업지구의
확대기간 조성과 보리밭 유채
꽃 등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
하면서 농업소득 기반이 다양
화했다. /고창=김영식 기자

부안군, 특화품목
'부안밀' 선정 쾌거

부안군(군수 권익현)은 농림축
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융복
합산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
에 부안밀이 선정됐다고 밝혔
다.
농촌융복합산업 지역특화품목
육성사업은 지역단위 농촌융복
합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
기 위한 것으로 주산지를 중심
으로 생산·가공·유통·관광이
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특화산
업 후보군을 발굴해 지역경제
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
하는 사업이다.
부안은 오다와 양파에 이어 이
번에 밀이 추가로 지정됐다.
지역특화품목에 선정되면 지
역항토지원사업(총사업비 5억
원)과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
사업(총사업비 30억원) 및 생활
력플러스사업(총사업비 70억원)
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
자격이 주어진다.
군은 그동안 정부의 '밀 산업
육성법' 제정 등 정책동향과 수
요확대에 대응해 밀 관련 산업
을 새로운 지역 성장산업으로
육성에 왔다.
특히 밀은 제분·가공 후 섭취
하므로 부가가치 높은 다양한
가공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
기대된다. /부안=김석진 기자

한국판 뉴딜 전략 방안 주문

유진섭 정읍시장, 간부회의 주제 대회사업 알리기 · 코로나 단계 격상 · 폭염 대응 등 지시

유진섭 정읍시
장이 정부의 한
국판 뉴딜 2.0 정
책에 발맞춰 전
략적 방안을 마
련할 것을 주문
했다.
유 시장은 28일
영상 간부회의에
서 "정부의 뉴딜 2.0은 양극화 해소와
사람 투자 강화, 새로운 한국판 뉴딜
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
한 단계 진화한 정책"이라며 이에 적
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변화한 상황
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
출 것을 강조했다.



또 27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황
조정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"시
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이어져 안타까
운 마음"이라며 "지금 이 고비를 넘지
못하면 더 크고 긴 고통이 이어질 수
밖에 없는 만큼 관련된 정보 제공과
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시민 생활 불편
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에 누수가 없
도록 하라"고 지시했다.
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은
세심하게 챙겼다.
유 시장은 "폭염 특보 발령 시 가장
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
지는 휴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야외
활동 자제 등을 권고하고 축사 등에
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지도하는 등 농

축산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
정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"고
말했다.
유 시장은 더불어 "용산호 주변과
내장산 문화광장 등에 추진되고 있는
개발사업과 연수원 건립 등 정읍의 대
형사업의 추진 현황과 기대효과 등을
제대로 알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
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불
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하라"고 강조했다.
이어 여러 부서가 관련된 다중 업무
추진 시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
을 통해 민원인 불편과 사업 추진에
차질이 없도록 하라"고 재차 강조했다.
/정읍=김대환기자



구한말 민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'영주정사'와 '영학숙'의 역사적 의미를 조
명하는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열린다.

학술대회 정읍서 열린다!

호남 인재 양성의 산실, '영주정사·영학숙'의 위상과 역할 주제

구한말 민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했
던 '영주정사'와 '영학숙'의 역사적
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정읍에서
열린다.
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는 오는
8월 7일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
국 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
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
다.
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역사문화연구
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(사)
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부이사장인
김재영 박사의 '호남 인재의 산실 영
주정사와 영학숙'이라는 주제 발표로
시작된다.
이어 향토문화사학자인 이진우 선생
의 '고부의 근대유학과 영주정사',
(재)한국학호남진흥원 권수용 박사의
'청암 박민환과 영주정사, 목포대학교
아시아문화연구원인 김상욱 박사의
'춘강 고경주의 근대 교육기관 설립
운동'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.
마지막으로 전북교육문화연구소 정원

기 선생의 '한말~일제강점기 영주정
사 출신 인사들의 활동'이 민족운동
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이다.
정읍 축임동의 영주정사는 현재 등록
문화재 제21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, 전
남 창령의 영학숙은 전남 민속문화재
제42호로 등록되어 있다.
영주정사가 호남지역 구학문을 대표
하는 곳이라면, 영학숙은 근대학문을
대표하는 곳으로 이 두 곳은 호남지역
인재 양성의 산실이었다.
뿐만 아니라 지역 부흥의 자재들이
이 두 교육기관을 통해 교류하고 인맥
을 형성하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.
이같이 영주정사와 영학숙은 해방 이
후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
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
하고 그간 학술적인 조명이 한 번도
이뤄지지 않았다. 이에 역사적 의미를
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정읍의 역
사·문화적 상징성을 확장하는 계기를
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.
/정읍=김대환기자

장기간 폭염지속 ·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점검 주문

권익현 부안군수, 7월 연석회의서 주민 '피해예방 철저' 강조

권익현 부안군
수가 장기간 폭
염특보 지속에
따른 피해예방
에 철저를 기할
것을 당부했다.
권익현 군수는
26일 부안군정
대회 의실에서
열린 7월 연석회의에서 "전국적으로
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부안지역
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
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"며
"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
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
달라"고 말했다.



이어 "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
면서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할 수
있도록 지도해 달라"며 "무더위 쉼
터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전염병 등
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"고
언급했다.
특히 "홀몸어르신과 장애인가구 등
폭염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
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
야 한다"며 "피해주민에 대해서는
신속한 방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
록 조치해 달라"고 강조했다.
또 권익현 군수는 "코로나19 4차
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전국 확진
자 수가 매일 1000명을 상회하고 있
다"며 "부안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를

통해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
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
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
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"고 밝
혔다.
이와 함께 "식중독 등 각종 여름전
염병을 대비해 위생관리에 만전을
기하고 휴가철 부안을 찾는 관광객
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
공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관리하고
있는 공공시설물 특히 공중화장실
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"며
"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
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화로운
균형과 협력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
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
만들어 달라"고 주문했다.
/부안=김석진 기자

정읍 신태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선정

정읍시 신태인 전통시장이 노후 시
설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해 깨끗하고
편리한 쇼핑 공간으로 재탄생된다.
시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'2021년 제2
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
업' 공모에서 신태인시장이 사업 대상
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.
신태인 전통시장은 각종 농·수산물
과 정육, 각종 반찬류 도소매 점포 수
십 개가 모여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
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
아 왔다.
이에 따라 시는 도비 6억원과 시 자

체 예산 4억원을 추가해 총사업비 10
억원을 들여 건물 지붕 시설과 진입도
로를 정비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
하게 된다.
우선 사업비 8억7천만원을 들여 시
장 건물 내부 균열 등을 보수하고,
1,480㎡ 규모의 비 가림 시설인 아케
이드를 설치한다.
직사광선 차단과 눈·비 등을 막을
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 시장 상인들
이 묵은 날씨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
을 할 수 있도록 합은 물론 쇼핑 환
경을 최적화해 참제한 지역경제에 활



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.
/정읍=김대환기자

고창군, 건설현장 · 축산농가 피해예방 진행

수일째 고창군 전역에 폭염특보가
이어지는 가운데 고창군이 건설현
장·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발
벗고 나섰다.
28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
오전 10시를 기해 고창군 전지역에 폭
염경보 발령이후 옛새재 낮 최고기온
이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
고 있다.
이에 고창군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
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폭염
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. 특히 야외
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

(오후 2시~오후 5시) 준수사항을 폼
꼼히 살폈다.
축산 농가와 관련해서, 축종 중에도
폭염에 가장 취약한 육계를 사육하
는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.
또 무더위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
위해 축사에 쿨링 패드와 안개분무시
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
했다.
앞서 고창군은 축산 폭염피해 방지
를 위해 4억5800만원을 투입해 4개사
업을 124농가에 지원했다.
/고창=김영식기자

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'북극'

우리집을 지켜주세요

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,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,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.

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